

유전자원 활용 위한 박·채소 '한자리에'

농진청, 유전자원 현장평가회... 터키 등 61개 나라에서 수집된

488자원 대상 전문가들이 직접 신종종 육성 소재로 쓰일 자원들 선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박과 채소 유전자원 활용을 위해 22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박과 채소 유전자원 현장평가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전체 채소 생산액 11조 5,000억 중 과채류 생산액은 2018년 기준 5조2,000억원 규모이다. 이 중 박과 채소는 2조2,000억원으로 과채류 생산액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현장평가회에서는 터키, 우즈베키스탄, 스페인 등 61개 나라에서 수집된 박과 채소 488자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신종종 육성 소재로

쓰일 자원들을 선별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네트멜론, 허니듀멜론, 호피무늬수박 등을 비롯해 외국에서 재배되는 칸탈로프멜론, 카나리멜론, 크립스 타이 수박 등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원을 선보인다.

또한 멜론 429자원, 수박 59자원에 대한 생육, 형태, 내병성, 기능성 성분 등 상업적 형질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고 활용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현장 평가 후 선별된 자원들은 육종 소재로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양할 예정이다. 분양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연구자는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서비스시스템(씨앗은행, geneban.krda.go.kr)에서 분양신청서, 자원목록,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농업유전자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속하게 자원을 분양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박교선 센터장은 "이번 현장평가회가 박과 유전자원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농업유전자원센터가 공개한 자원들이 좀더 산업의 품종육성과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박과 채소 유전자원 현장평가회'가 열린 22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연구원들이 네트멜론, 호피무늬수박 등 61개국에서 수집된 480여개의 유전자원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전은장학문화재단, 한별교에 '3D프린터 지원' 기기 전달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이 지난 21일 한별고등학교에서 '3D프린터 지원사업' 기기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 전북은행 우석대 지점 박종우 지점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하 부장, (주)에이케이 박준규 대표, 한별고등학교 이혜선 교장, 권미 교감, 이연호 교사와 학생들이 참석해 3D프린터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과 기기 설치 및 사용 방법 등 프린터 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별고 한 학생은 "과학 동아리를 통해 이론뿐만 아니라 3D인쇄를 직접 경험하고 활력에 불 수 있어서 앞으로 동아리 활동이 기대된다"며 "작년에 기사를 통해 모델링 경진대회를 접하고 꼭 지원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찾아와 전북은행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연호 교사는 "3D펜을 이용해 경시대회를 개최했고 이후 3D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프린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면 아이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며 "간절히 원하니 이렇게 도와주는 기관이 생겼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해 해주어 꿈을 더욱 넓힐 수 있도록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는 22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순항'

새만금개발공사,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협약 체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판문)는 22일 중부발전 컨소시엄과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중부발전 컨소시엄은 이달 중 군산 시내에 사업시행법인(SFC)을 설립해 본 사업의 인허가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사업시행법인(SFC) 10개사는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주)호반건설, 현대건설(주), 푸른전력(유), (주)솔라문, (주)에너, (주)군장종합건설, 케이비스프링신재생 제1호 사무투자합자회사,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강 사장은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

은 새만금이 그린 뉴딜의 중심으로 발전해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새만금은 전복에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고, 산업이 허락하면 새만금이 연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총사업비 1,451억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업체 40% 참여·지역기자재 50% 사용을 협약해 전복 경제에 활력소가 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외국인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 이후 3000억 지급

국민연금, 2010년 도입 이래 외국인 고객 이용자 5만명 돌파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22일 인천공항상담센터의 공항지급 서비스를 통한 반환일시금 지급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며 이용고객은 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공항지급 서비스는 2010년 세계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에게 인천공항에서 출국 시 현금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이 서비스 도입 이후 약 5만 1,000명의 외국인 고객에게 약 2,960억원(2020년 6월 말 기준)을 지급했으며, 스리랑카, 필리핀, 중국 국적 외국인이 약 4만2,000명으로 전체 이용고객의 80%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각국이 일시적으로 공항상담센터로 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단은 해당 대사관에 전세기 출국 일정 확인, 공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행과의 업무협조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출국 당일 외국인들의 일시금 지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공항지급 서비스 이외에도 각 국의 사회보험기관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태국, 몽골, 우즈베크 등 6개국 외국인들에게 본국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만4,000명의 외국인에게 약 275억원(2020년 6월 말 기준)의 반환일시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지급 서비스는 안정적인 지원으로 제공되고 있어 외국인들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앞으로도 편의 서비스 다각화로 많은 외국인들이 공단의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에스스아이폴리텍과 '생활 속 전기안전캠페인' 전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는 2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멀티탭 제조기업 (주)에스스아이폴리텍과 '생활 속 전기안전캠페인' 전개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 권순천 홍보실장과 에스스아이폴리텍 김연환 대표이사(사)가 함께 한 이날 협약에서 양 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제품 안전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기안전 생활화 캠페인을 함께 펼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는 에스스아이폴리텍에 전기안전 캐리어 '미리'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에스스아이폴리텍은 공사 캐릭터와 전기안전 요령이 담긴 멀티탭을 생산해 판매·보급하기로 했다.

권순천 홍보실장은 "양사의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생활속 전기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매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스스아이폴리텍 김연환 대표이사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일과 더불어, 국민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함께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고소득자 세 부담 늘리고... 서민·중기 혜택도 늘리고...

세법 개정안, 세제발전심의위 통과... 조정대상 지역 2-3주택자 증부세·양도소득세도 일제 강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발심 회의에서 의결한 이 개정안은 고소득·대재산가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신 서민·중소기업에는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과세 표준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까지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및 3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일제히 강화했다.

반면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 금액은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러모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1분기 방역 피크·2분기 경제 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세제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 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이 3가지는 기본 방향으로 했다"면서 "첫 번째 축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등 세제 지원"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홍 부총리에 따르면 기재부는 특정 시설에 한정된 9개의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 단순화하고, 더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기술 관련 투자의 요건은 완화했다.

홍 부총리는 또 "부가세 간이 과세 기준 금액과 간이 과세자 중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 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는 2년 더 연장하겠다"면서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 소득은 배당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물리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항목도 줄어드는 항목도 있지만, 조세 중립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분양권도 주택수 포함... 법 시행 이후 취득분부터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 통해 결정

정부와 여당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대상으로 적용하려 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데, 여기에는 양도세 중 과대상인 다주택자의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할 경우 2주택으로 간주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자가 분양권도 갖고 있을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p) 증과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7·10 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6월부터는 증과세율이 10%p가 추가 인상된다. 하지만 이후 새집으로 이사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구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증과를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셈이다.

기재부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입주권) 비과세와 유사한 특례를 분양권에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본관 2층 자문당에서 '전북지역 농업용수의 확보 및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농업용수 확보·관리방안 모색

농어촌공 전북본부, 세미나 열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강환)는 지난 21일 전북대학교 농생명과학대 본관 2층 자문당에서 '전북지역 농업용수의 확보 및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새만금미래농업교육 연구센터와 한국농공학회에서 주최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통합물관리와 전라북도의 농업용수 관리방안", "전라북도 수자원 이용기관 상생 방안", "전북지역의 물관리 현황 및 농업용수관리 정책"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용성 있는 운영 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통합물관리와 물관리 일원화 등 변화하는 물관리 정책에 대응하고 전북지역 농업용수의 관리방안과 물관리 현황 및 농업용수 관리 정책사항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이강환 본부장은 "통합물관리는 위기가자 기회이며, 농업생산 환경 변화 등으로 농업용수 관리는 갈수록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용수 관리라는 어려운 일을 그동안 묵묵히 해내온 한국농어촌공사가 앞으로 한발짝 더 나아가 전북지역의 물 관리를 선도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청, 오늘

청렴 옴부즈만 정기회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23일 서울 새만금투자진전관에서 올해 첫 청렴 옴부즈만(민원 도우미)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옴부즈만들에게 새만금의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권익위에서 신청한 청렴 옴부즈만의 타 기관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만금개발청의 청렴 옴부즈만은 2014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각계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 청 내 청렴 문화 구축을 위해 개선, 권고 사항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유호상 기자